

광주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본격화

'달의 정원, 월봉서원' 운영 '광산 사계 몽' 체험 프로그램 생생유산 등 5개분야 9개사업 "미래성장 동력 발돋움 노력"

광주시가 이달부터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 활용 10대 브랜드 사업에 이름을 올린 '달의 정원, 월봉서원' 사업이 이달부터 '선비의 하루', '살롱 드 월봉',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춘설현·광주읍성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돌의 기억', 용아생가·김봉호 가옥·장덕동 근대한옥을 배경으로 한 '광산 사계 몽(夢)' 등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선정한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돌의 기억 △서창(西倉) 들녘에 부

는 바람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광산 사계 몽(夢)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스토리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인더시티 등 총 9개 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문화콘텐츠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사업 분야는 '생생국가유산',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전통산사문화유산', '고택 종갓집', '문화유산야행' 5개 분야이다.

먼저 동구는 춘설현과 광주읍성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카페 '춘설현', 성돌카페 '동인 東人' 프로그램을 의병 등 광주의 인물과 차(茶) 이야기 등을 담은 '돌의 기억'이 선정됐다.

서구는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이 선정돼 '서창의 풍류', '벽전에서 회재

를 만나다' '스토리텔링으로 되살아나는 서창' 등 영산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서창 들녘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구는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사업을 진행한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의 일대기와 환벽당, 최가정 등과 연계한 '김덕령 이야기 버스', '누정마켓' 등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광산구는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잡은 약 2000여 년 전 마한시대 농경복합생활유적인 신창동 유적을 배경으로 유적에서 발굴된 칠기, 베틀 부속구 등 제작과정을 체험과 교육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통해 홍보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옛 선인들의 지혜가 깃든 향

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시민과 만난다.

광산구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무양서원)' 2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조선 성리학의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 드 월봉'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 10대 대표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사업 운영은 물론 홍보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의 전통산사 문화유산을 활용해 자연과 벗하며 아름다운 전통산사에서의 힐링도 맛볼 수 있다.

북구의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스토리' 사업이 선정됐다. 무등산 자연환경과 원효사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동부도팝업북 컬러링스쿨', '처음이자 밝음이의 무등산 산책' 등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또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에는 광산구의 '광산 사계 몽(夢)'이 선정됐다.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옥을 배경으로 '용아살롱 시인의 사계(용아생가)', '농가의 사계(김봉호 가옥)', '고택의 사계(장덕동 근대한옥)' 등 강연과 공연, 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화유산야행에는 동구 '돌의 기억'이 선정돼 지난달 옛 전남도청, 광주읍성유허 등 일원에서 인기리에 진행됐다. 달밤은 밤, 살며시 떠나는 야행 8야(夜) 문화재 야행은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 협력을 통해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영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는 선사시대 신창동 마한유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고장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과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김영록 지사, 미국 유명 셰프에 전남 농수산물 소개

백양사서 김부각 등 세일즈 활동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초청 공양행사에 참석해 조미김과 김부각 등 전남 농수산물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양행사에선 미국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르 베르나르탱의 오너 셰프이자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에릭 리퍼트를 초청, 김 등 지역 제철 식재료로 사찰음식을 만들어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

님, 장해춘 세계김지연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관스님에게 "김 등 지역 식재료를 이용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올해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주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7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에릭 리퍼트 셰프에게 "미국 냉동김밥 등 케이(K)-푸드 열풍에는 대한민국 김 생산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의 농수산물 등 남도음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된다"면서 전남 농수산물의 세일즈맨 역할을 토포했다.

곽지혜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특별사진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삼호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20일 광주 동구 ACC플라자 브릿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특별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나건호기자

전남도 '의대 공모' 용역기관 선정 착수

23일 누리집에 공고문 게재 9~10월 추천대학 결정 전망

전남도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추천대학 공모를 위한 실무 첫 단추인 용역기관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정부 추천대학 공모 작업을 진행할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도청 누리집 등에 게재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정원 200명'을 목표로 한 전남 의대 신설의 사실상 첫번째 과제, 용역기관 선정에서 추천대학 결정까지 4~5개월이 소요되고 정부 건의는 9~10월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소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심사는 단계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추천대학이 결정되면 전남도가 교육부에 정식 추천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남도는 2025학년도 전국 32개 의대별 모집 인원이 1550명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비해 450명의 '여유 정원'이 발생한 만큼,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신설과 함께 첫 정원 200명, 여의창을 경우 100~15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교육부 평가를 통한 의대 신설과 공모에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당사자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인 목포시, 순천시를 대상으로 의대 신설과 공모 참여를 위한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 등 동부권이 전남도의 공모가 법적근거와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 주도 대학선정을 요구하고 있어 동부권 설득작업이 여전히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단으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탄력이 붙은 만큼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첫 의대 신설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며 "동·서부권 공모 참여 독려와 별개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 실무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삼성전자와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지원 제조 혁신 노하우 등 전수

전남도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초 단계 사업량을 전년도 5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늘렸으며, 전남도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업비의 30%씩 기

업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자부담(40%)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최대 1억 원이다.

삼성 현지 제조 전문가 3명이 지원 기업에 8~10주간 상주 근무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한다.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 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그와 연동된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삼성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교육, 유지보수,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고도화 도약 컨설팅까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종합 육성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22일 전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안에 전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광주관광공사, '숙박세일 페스타' 운영

내달 여행객에 할인쿠폰 제공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운영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6월 광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11번가, G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웹투어 등 30개사 32개 채널을 통해 숙박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폰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광주지역 숙박시설을 7만원 이상 예약하면 5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할인 적용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14일까지이며, 쿠폰 발급·예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쿠폰이 소진되면 조

기에 마감될 수 있다.

쿠폰 사용은 발급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한 쿠폰은 자동 소멸되지만 재발급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6일부터 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무료 입장권 추천 행사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

노병하기자